

노동: 민주화, 탈상품화, 환경 복원

노동하는 인간은 '자원(resources)'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아픈 이를 돌보고, 음식·의약품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채우고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을 지속시켜주는 이들이야말로 노동이 단순히 상품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인간의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이 박탈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삶과 미래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기업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을 탈상품화하는 것이다. 팬데믹과 환경파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이룬다면 지구상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힘을 이끌어내고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민주화인가? 남녀 가릴 것 없이, 특히 소수 인종의 구성원과 이주민 및 비공식 경제 종사자들은 격리 상태에서도 지낼만한 여력이 있는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 이들 직업의 존엄성은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라는 웅변적이고도 간결한 용어가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이 용어는 자본주의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이라는 용어 뒤에 숨어 늘 감추고자 했던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단지 여러 자원 중 하나가 아니다. 노동 공급자가 없다면 생산도, 서비스도, 사업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격리 중인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집에서 일어나 밤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감독 없이는 직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믿으며 감시와 외부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단지 여러 이해 당사자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열쇠를 쥐고 있음을 밤낮으로 보여준다. 노동자는 기업의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지배구조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권은 자본 투자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 전체가 위기의 시기에 노동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로 응하는 것이다. 점차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최저선(income floor)을 높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 부인할 수 없는 여성들의 사회 공헌은 여성이 참정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에서는 종업원평의회(Work Councils)라는 제도를 통해 직장내 노동자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기구도 기업지배구조에서 기껏해야 미미한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 뿐이며 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이 기구는 환경파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기적인 자본 축적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지도, 심지어 늦추지도 못한다.

이제 노동자 대표기구에도 이사회가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대변하는 회의체로부터 이중의 과반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이후 다양한 형태의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업 내 실질적인 시민권을 형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노조의 조직과 권리가 상당히 억압된 미국에서조차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CEO 선임, 주요 전략 수립 및 이익 배분 등은 주주에게만 맡겨 두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들이다. 개인의 노동 투자, 즉 개인의 몸과 마음, 건강, 개인의 삶 자체를 투자하는 일에는 이러한 결정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왜 탈상품화인가? 지금의 위기는 노동이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시장 기제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수년간 보건 부문의 일자리와 공급은 수익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좌우되어 왔는데, 오늘날 팬데믹은 그 원칙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특정한 전략적·집단적 요구는 수익성 원칙에 영향받아서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절대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뼈아프게 상기시켜준다. 이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는 이들은 그들의 위험한 사상으로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삶에 관한 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의 탈상품화는 이른바 '자유 시장'의 법칙으로부터 특정 부문을 지켜내고, 모두에게 노동과 노동이 가져다주는 존엄성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자리 보장제(Job Guarantee)의 도입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자리 보장제는 각 개인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직면한 여러 시급한 사회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고용이 보장되면 정부는 지역 사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민주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U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럽 그린딜(Green Deal)에 포함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의 사명을 재검토하여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이 프로그램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은 모든 EU 시민의 삶에서 정당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일자리 보장제는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에 대한 경기조정 방안으로서 EU의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환경 복원. 이제는 2008년 경제 위기 때처럼 무조건적인 긴급 구제를 감행하여 공공 부채를 크게 부풀리던 순진한 대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 위기에서 정부가 기업을 구하고자 나선다면, 기업 역시 나서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각 정부가 받드는 이념이자 정부의 구성 기반이기도 한 민주사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지구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야

할 책임에 따라, 각 정부는 기업의 일정한 행동 변화를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엄격한 환경 기준 준수에 더하여, 기업이 일정한 민주적 내부 운영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환경파괴에서 환경 복구와 재건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노동을 투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자본 투자자들과 동일한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현행 체제하에서 노동, 지구, 자본 수익을 저울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오랜 기간 충분히 목격했다. 노동과 지구는 항상 뒷전이였다. 케임브리지대 공학대학의 연구 덕택에 우리는 “달성 가능한 설계 변화(achievable design changes)”로 지구의 에너지 소비를 73%까지 줄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Cullen, Allwood, and Borgstein(2011), *Envir. Sci. & Tech* 45, pp.1711-18).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노동집약적이며 때로는 단기간에 높은 비용이 드는 선택이 요구된다. 기업이 자본 투자자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한, 에너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과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전환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 목표를 추구하고 민주적인 내부 운영을 지향하는 등, 일부 사회적 의식이 있거나 협동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이미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의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 자본 투자자들의 뜻에만 맡겨 두면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개의치 않을 것이고 환경 재앙에 맞선 싸움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기업을 민주화하고, 노동을 탈상품화하며,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멈춤으로써 이 지구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데 함께 집중해야 한다.

2020년 5월 16일